

# 수능 전 마지막 모평 다소 쉬웠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 분석

### 국·영·수 지난해 수능과 비슷 공통 수학 까다롭게 출제 돼 수학 선택과목 변경 신중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수학·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에 치른 모평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 회가 이날 치른 9월 모의평가 주요 과목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가능해본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이번 모평은 수능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11월 17일)에 앞서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다.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됐다.

공통과목이 비교적 쉽게 출제됐으나 선택과목 중 언어와 매체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화법과 작문 선택 학생보다 더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고사에 결구 공통과목 수학 I, 수학 II의 문항의 난이도가 높았다. 선택과목에서 유불리 논란이 일자 공통과목에 고난도 문항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학의 경우 매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간 유불리 논란이 일고 있다.

공통과목에서는 객관식 4점 문항의 난도가 올라갔고 선택과목에서는 미적분은 어렵게, 확률과 통계·기하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난도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15번 수열 문항, 22번 다항함수의 미분 문항이 꼽혔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이번 모평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논란을 고려해 문제를 출제할 경향이 두드러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어 영역도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풀이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지난 31일 광주·전남지역 고교를 비롯한 전국에서 치러졌다. 광주시 동구 전남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지 배부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보다 지문 길이가 짧아지고 대표적인 고난도 문항인 빈칸 추론과 순서 배열 유형이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길러 문항으로는 39번 문장 삽입 유형이 꼽혔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입시전문가들은 수학 등 선택과목 변경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진학팀 장학사는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중하위권 학생들이 수학 영역 등에서 선택과목을 변경할 만큼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수능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목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 거리두기 없는 추석

### 휴게소·버스·철도 내 취식도 가능...통행료 면제 부활 모임 인원 제한 없지만 요양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

이번 추석 연휴(9~12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되겠다.

가족 모임 규모나 방문 등에 제한이 없고,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가 유행하자 2020년 추석부터 이동량을 줄여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통행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대중교통 좌석도 '한 칸 띄어 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재택 치료(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는 연휴 기간 148개소 이상이다.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을 찾거나 보건소·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입원과 연계할 수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관내 119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환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연휴 병원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대응한다. 일반 진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는 가까운 일반 병원으로 안내하고, 중증·응급 환자는 지정병원 병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은 가능하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 초강력 태풍 '힌남노' 한반도 상륙하나

### 일본 해상서 진로 바뀌 북상 가능성...2일 광주·전남 5~40mm 비

제11호 태풍이자 '초강력' 태풍으로 등급이 매겨진 '힌남노'가 진로를 바꿔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광주지방기상청이 31일 밝혔다. 오는 2일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전역에 5~4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일본 남쪽 해상을 서진하고 있는 '힌남노'가 오는 2일부터 진로를 바꿔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수 있다"고 예보했다. 지난 28일 오후 9시께 발생한 태풍은 31일 오후 3시 현재 오키나와 남동쪽 약 170km 해상을 지나고 있다. 9월 2일 새벽 3시까지 남서쪽으로 이동하다 오

키나와 남쪽 해상에 이르르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방향을 틀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힌남노는 31일 기준으로 중심기압 915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5m에 달해 현재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됐다. 태풍은 풍속에 따라 중·강·매우 강·초강력 4개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중 최대풍속이 초속 54m를 넘는 경우 '초강력'으로 분류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직 태풍의 변동성이 커 진로와 예상 위치, 속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오는 2일께 이동 경로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11주기 가슴기살균제 참사는 '진행형'

### 광주·전남 피해신고 360명에 인정 55% 그쳐

참사 11주기를 맞이했지만, 광주·전남에서 가슴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지역민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55.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환경단체가 가슴기살균제 참사 11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보상을 막고 있는 가슴기살균제 가해 기업인 옥시와 애경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단체가 배포한 참사 11주기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가슴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지역민은 총 360명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200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193명(사망 50명·생존 143명)의

지역민이 피해를 신청해 106명(사망 25명·생존 81명)이 인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167명(사망 51명·생존 116명)이 신청해 94명(사망 31명·생존 63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피해를 인정받은 지역민 중 4명 중 1명 이상이 숨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구제를 인정받은 전체 피해자 4350명 중 88.3%(3842명)가 기업의 배·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단체는 "옥시와 애경이 지난 3월 '가슴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요구한 '7027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배상 및 보상 문제가 진전이 없다"고 비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오월정신 헌법 수록 등 당면과제 해결 적극 나설 것"

### 박민식 보훈처장, 광주 방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31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5·18 민주유공자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예우와 보상의 격차를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광주시 북구 운정동

의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후 오월단체들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5·18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다른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등이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오월단체들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

라는 오월단체의 요청에는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고 등대다"라며 "운 대통령 역시 초지일관 같은 생각이다"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후 오월 어머니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오월어머니들과 식사 시간을 가지며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김형미 오월 어머니집 관장은 "박 처장은 보훈처장으로는 처음으로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했다"면서 "어머니들과 요가를 하며 허울 없이 지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망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 사옥 임대 문의

##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